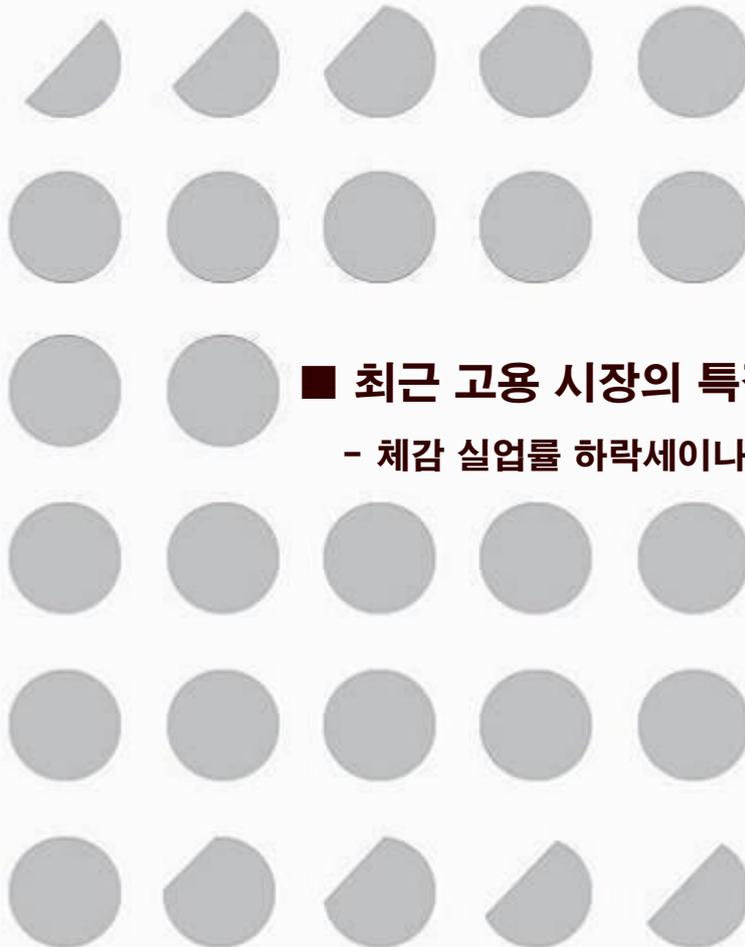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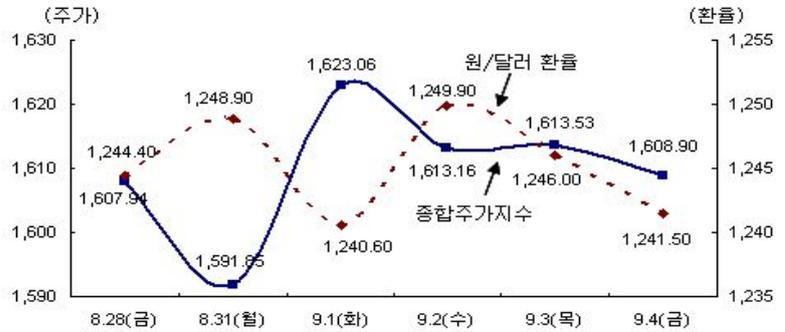


■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 체감 실업률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28~9.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 체감 실업을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다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정 유 훈 선임 연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Executive Summary

□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 체감 실업률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다

(바닥을 확인 중인 고용 시장) 최근 고용 시장은 실물 경기 지표의 호전 속에 신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어 일단 바닥권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에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1/4분기, 2/4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4.6만명, 13.4만명으로 감소했으나, 7월에는 7.6만명 감소에 그쳤다. 실업급여수급 인원도 2009년 4월 45.8만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현재 43.6만명으로 감소하였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2009년 1월 0.2에서 6월 현재 0.4까지 회복되었다. 실업률은 2008년 연간 3.2%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8%, 3.8%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7월에는 3.7%로 다소 낮아졌다.

(고용 시장의 문제점) 고용시장 침체가 더 이상 깊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부문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7월 현재 6.1%에 달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7월 현재 11.0%로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정도 높다. 둘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용근로자 신규 일자리는 2009년 7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영업자는 2009년 5월, 6월, 7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30.1만명, -28.7만명, -22.9만명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성별로 보면 고용 여건의 악화가 특히 여성에 집중되면서 전체 일자리의 감소 중 여성 일자리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는 13.2만명의 감소를 보인 반면 남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의 증가는 0.04만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넷째, 연령별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주로 청년층인 20~30대에 집중되고 있다. 2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4년 1월 이후 5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 7월 현재 신규 취업자수도 11.2만명 감소했다. 특히, 2009년 6월 현재 전체 '쉬었음'이라고 한 비경제활동인구 126만명 중 청년층(15~29세)은 27만명으로 21.2%에 해당하고, 2009년 7월 전체 실업자 92.8만명 중 청년층 실업자는 37.9만명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부문은 고용 부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은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는 2008년 연평균 -5.2만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16.3만명, -15.1만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는 2009년 6월 7월 각각 27.1만명 25.0만명 증가로 2008년 연평균 26.3만명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수가 6월, 7월 각각 26.8만명, 31.1만명으로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향후 고용시장 전망) 향후 고용 시장은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한계에 달하고 있어 고용 불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 추이를 보면, 구인배수와 신규 취업자수 등 고용 지표 상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 지표 중 선행지수인 구인배수는 2009년 7월 0.27을 최저점으로 6월 현재 0.41까지 상승하였고, 구인배수에 후행하는 신규 취업자수는 2009년 6월 -19.5만명을 최저점으로 7월 현재 -7.6만명까지 회복되었다. **다만, 노동 수급 요인과 정책 요인을 감안하면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노동 수급 요인으로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9년 7월 15일 현재 861개의 중소기업에 1차 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113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였고, 2009년 8월부터 여신 규모 30~50억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평가가 실시 중에 있다. 또한, 건설, 해운 등 경기 악화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책 요인**으로는 정부 재정 여력의 한계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워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6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2009년 상반기 (1~7월) 계획인 3.4조원을 넘어 3.6조원을 집행하여 현재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 연간 계획인 4.5조원의 80.0%에 달한다. 정부 지출 증대로 국가 채무가 누적되는 것도 고용 지원 정책의 확대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대책) 고용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도 등을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전직 및 재취업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에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 및 재택 근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취업 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노동 수요와 부합되도록 기존의 제조업 기술자 양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육성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

바닥을 확인 중인 고용 시장	
바닥을 확인 중인 고용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경기 지표의 호전 속에 신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어 일단 바닥권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2009년에 1/4분기 2/4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4.6만명 13.4만명으로 감소했으나, 7월에는 7.6만명 감소에 그침

고용 시장의 문제점	
높은 체감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 실업률은 2009년 7월 현재 11.0%로 공식 실업률보다 3배임 · 취업하지 못한 인구가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공식 실업률은 7월 현재 3.7%에 그침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 지속과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일용근로자 신규 일자리는 2009년 7월 19.5만명 감소 · 자영업자는 2009년 7월 22.9만명으로 대폭 감소함
여성에 집중된 일자리 감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일자리의 감소 중 여성 일자리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 ·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는 13.2만명 감소한 반면, 남성은 0.04만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감소는 주로 청년층인 20~30대에 집중 · 2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4년 12월 이후 5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 7월 현재 신규 취업자수도 11.2만명 감소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건설업 부문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이 개선됨 · 공공행정 부문의 일자리수가 7월 31.9만명으로 대폭 증가

향후 고용시장 전망과 대책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한계로 고용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청년인턴제도 등은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전직 및 재취업 유도하기 위해 직업 훈련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함 - 고용 시장에서 가사와 육아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탄력적인 근무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함

1. 바닥을 확인 중인 고용 시장

○ 실물 경기 지표의 호전 속에 최근 고용 시장은 신규 일자리수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으나 고용 부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신규 일자리 감소세 둔화) 신규 일자리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고용 여건의 추가적인 악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 2009년 고용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1/4분기, 2/4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4.6만명, 13.4만명의 감소했으나, 7월 7.6만명 감소에 그침
- 실업급여수급인원도 2009년 4월 45.8만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현재 43.6만명으로 감소함¹⁾
- 구인배수²⁾는 2009년 1월 0.27에서 6월 현재 0.41까지 회복됨

○ 최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여건의 악화로 100만 실업자 시대에 바짝 다가섬

- (늘어난 실업자수) 경기 침체 후 지속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자수는 2008년 76.9만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에 각각 90.8만명, 94.3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7월 현재에도 92.8만명에 달함
- 실업률은 2008년 연간 3.2%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8%, 3.8%로 상승하였고, 2009년 7월 현재 3.7%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고용 동향 >

(단위 : 만명, %)

	2008					2009			
	연 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취업자 증감	14.5	20.9	17.3	14.1	5.4	-14.6	-13.4	0.4	-7.6
고용률	59.5	58.5	60.4	59.9	59.4	57.4	59.3	59.8	59.4
실업률	3.2	3.4	3.1	3.1	3.1	3.8	3.8	3.9	3.7
실업자수	76.9	80.1	76.7	75.2	75.7	90.8	94.3	96.0	92.8

자료 : 통계청.

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월호.

2) 구인배수는 신규구인인원을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인당 현재 일자리수를 의미하는데 공공고용안전망인 Work-Net에 등록된 값으로 산출됨.

2. 최근 고용 시장의 문제점

○ (높은 체감 실업률³⁾) 통계청 발표 공식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임

- 통계청 공식 실업률에 나타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등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3월 6.3%에 달했고, 7월 현재 6.1%에 달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3월 12.5%에 달했고, 7월 현재 11.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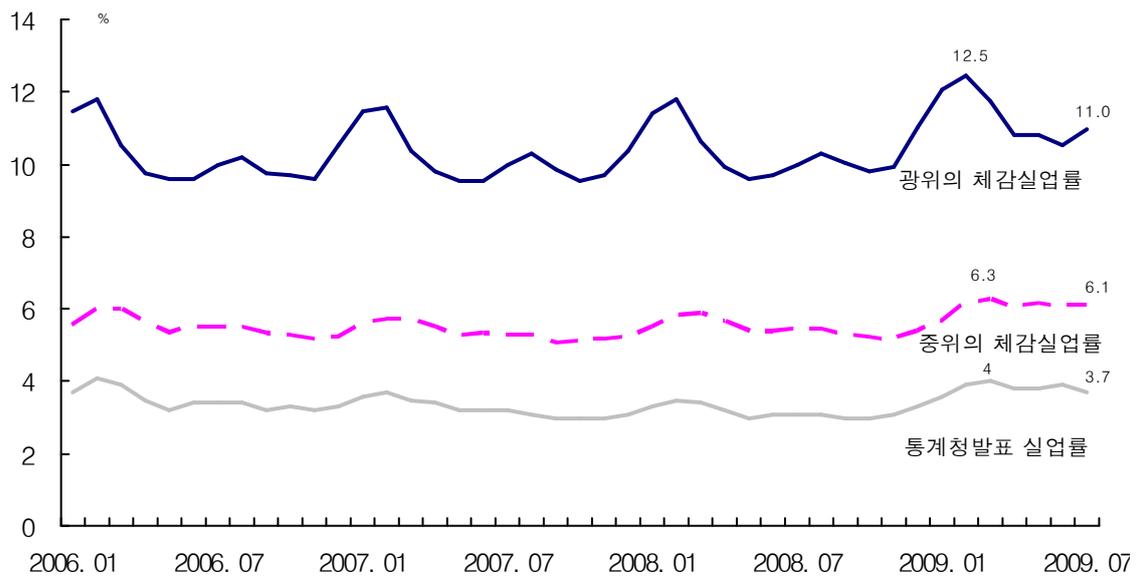
※ 1) 광위 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00

2) 중위 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100

3)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하지 못한 인구가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임

< 체감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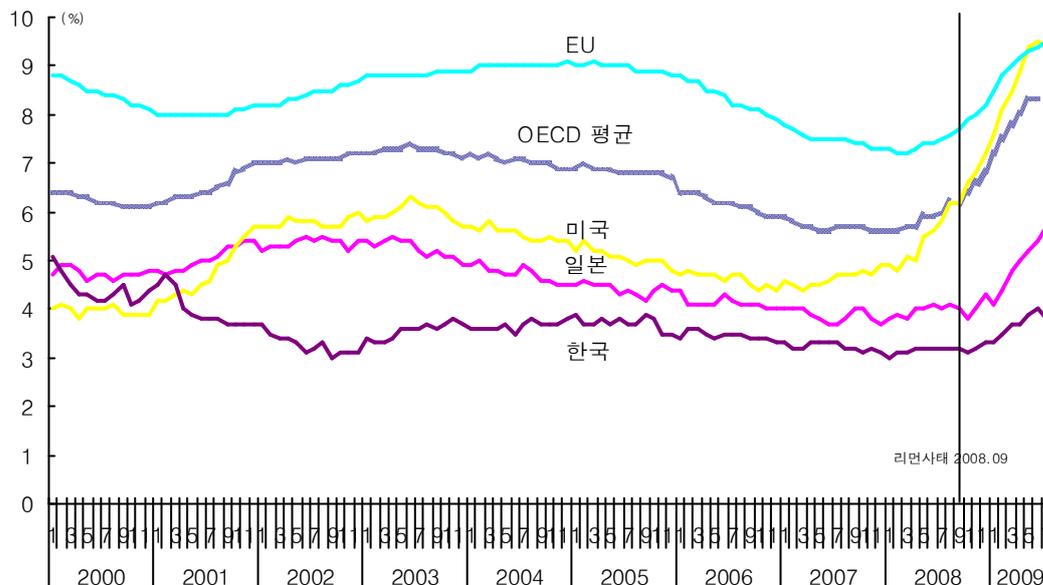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 현대경제연구원, '학력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 「경제주평」 2007.3.2.를 참조바람.

- 글로벌 경기침체로 OECD 각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해 경기 침체를 반영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일자리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함
 -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9월 6.2%에서 2009년 6월 현재 8.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치)은 2008년 9월 3.2%에서 2009년 3.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미국, 일본, EU는 2008년 9월 각각 6.2%, 4.0%, 7.7%에서 2009년 7월 현재 9.4%, 5.7%, 9.5%로 상승함
- 극심한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임
 - 2008년 OECD 주요국의 고용률⁴⁾은 미국, 일본, OECD평균이 각각 70.9%, 70.7%, 66.5%인데 반해 한국의 고용률은 63.8%에 불과함
 -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낮지만, 고용률은 30개국 중 22위로 매우 낮음

< OECD 국가의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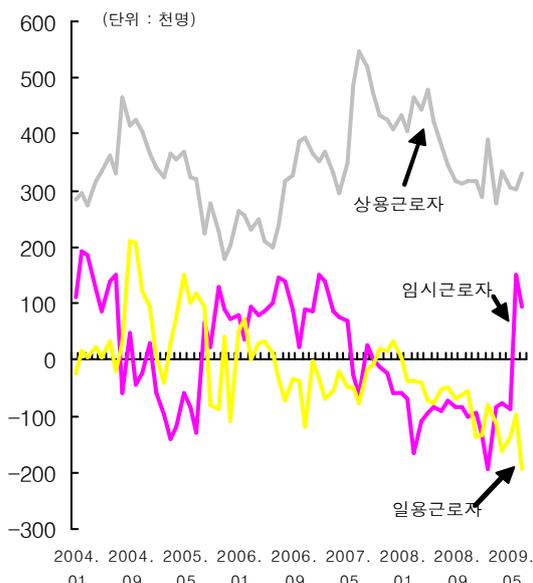


자료 : Reuters Econwins, 통계청.
 주 : 각국의 실업률은 계절조정 실업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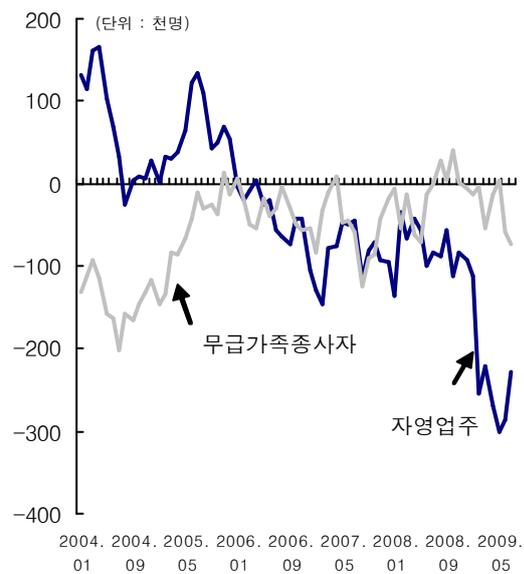
4) OECD, Key employment statistics, www.oecd.org/employment/keystatistics을 참조.

- (종사상 지위별)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의 신규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는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신규 일자리 수는 대폭 감소함
 - 일용 근로자는 2009년 7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의 대폭 감소를 나타냄
 -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를 통해 임시근로자는 2009년 6월, 7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14.9만명, 9.2만명으로 크게 증가함
- (비임금 근로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수가 급감함
 - 자영업자는 2009년 5월 전년동월대비 30.1만명 대폭 감소하면서 6월, 7월에도 각각 28.7만명, 22.9만명의 감소를 나타냄
 - 비임금근로자는 2009년 7월 30.2만명의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 취업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음
- 기업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유지 노력으로 상용직에 대한 고용조정보다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 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 (성별) 고용 여건의 악화가 특히 여성에 집중되면서 전체 일자리의 감소 중 여성 일자리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 상반기(1-7월) 월평균 취업자는 여성의 큰 폭 감소로 나타남

- 2009년 상반기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는 13.2만명의 대폭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의 증가는 0.04만명으로 정체를 보임
- 2009년 7월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만명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남성 취업자는 0.3만명의 감소에 불과함
- 특히, 2009년 6월 신규 취업자수는 0.4만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달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1만명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남성 취업자는 9.5만명의 증가함

- 성별 연령별로 보면, 30대 여성의 신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함

-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 전체의 월평균 일자리 감소수가 13.2만명 중 30대 여성의 일자리 감소수는 13.0만명으로 98.5%에 달함
- 동기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로 인한 월평균 증가는 18.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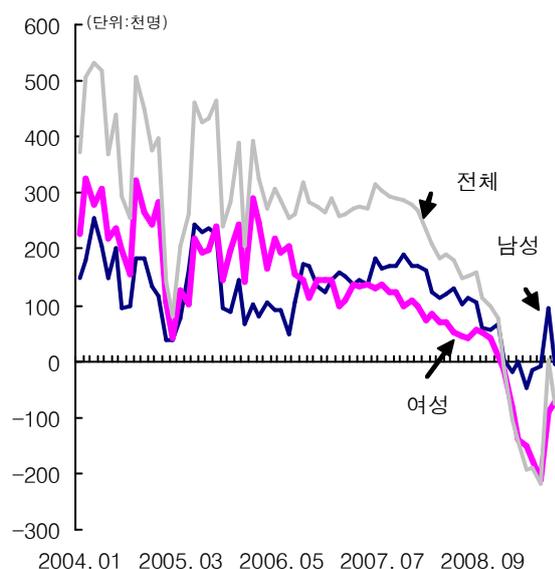
< 여성의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단위: 만명)

	200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증감	-13.9	-14.9	-17.4	-21.1	-9.1	-7.3
30대	-15.7	-14.1	-15.9	-14.6	-12.9	-8.9
비경제활동인구	31.0	32.4	32.6	35.7	25.3	25.5
육아·가사	26.4	21.6	24.0	16.3	12.8	13.0

자료 : 통계청.

< 성별 취업자수 증감 >



- (연령별)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주로 청년층인 20~30대에 집중되어 고용 감소로 이어진 반면, 50대 이상은 고용 증가를 보임
 - (청년층 고용 악화 지속)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3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8년 7월 이후, 13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09년 7월 신규취업자수는 20.2만명을 감소를 나타냄
 - 2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4년 12월 이후, 5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7월 현재 신규 취업자수도 11.2만명의 감소를 보임
 - (고령층 고용 증가) 정부의 희망근로 등의 일자리 대책이 주로 고령층이 수혜를 입으며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50, 60대의 2009년 7월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9.3만명, 8.7만명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청년층에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
 - 2009년 7월 현재 전체 '쉬었음' 인구 139만명 중 청년층(15-29세)은 29만명으로 20.9%에 해당함
 - 2009년 7월 전체 실업자 92.8만명 중 청년층 실업자는 37.9만명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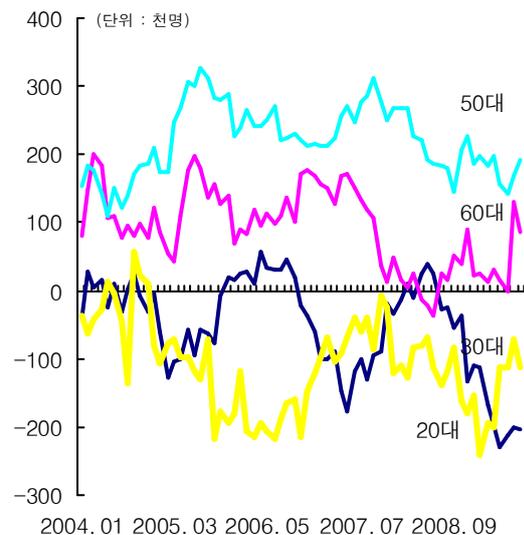
< 청년층 실업자 추이 >

(단위 만명)

	2008			2009		
	연간	2/4	4/4	2/4	6월	7월
계	769	767	757	943	960	928
15세 ~29세	315	327	300	351	372	379
20 대	293	306	278	328	333	336

자료 : 통계청.

<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



○ (산업별)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은 고용 부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

- 제조업과 건설업의 신규 일자리 수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등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

-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수의 감소폭은 2008년 연평균 -5.2만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16.3만명, -15.1만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됨
- 건설업의 신규 일자리수 역시 2008년 연평균 -3.7만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4.3만명, -11.3만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됨
-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수는 2009년 6월, 7월 각각 27.1만명, 25.0만명 증가로 2008년 연평균 26.3만명 수준까지 회복됨
- 단,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이 6월, 7월 각각 26.8만명, 31.9만명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임

- 최근 광공업 생산 및 수출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임

- 광공업생산은 2009년 4월, 5월, 6월 각각 -8.2%, -9.0%, -1.2%로 개선되고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
- 수출 증가율 역시 2009년 4월, 5월, 6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8%, -28.6%, -12.4%로 마이너스 성장 중임

< 산업별 신규 취업자수 >

(단위 : 만명)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전체	14.5	20.9	17.3	14.1	5.4	-14.6	-13.4	0.4	-7.6
제조업	-5.2	-1.8	-3.4	-5.2	-10.3	-16.3	-15.1	-15.7	-17.3
건설업	-3.7	-2.2	-4.6	-4.0	-4.1	-4.3	-11.3	-8.8	-12.7
서비스업	26.3	30.7	30.0	26.2	18.7	4.7	15.4	27.1	25.0
사업개인공 공서비스	29.7	26.8	29.1	33.1	30.0	23.6	34.1	41.9	46.9
공공행정	4.4	4.5	6.9	4.3	1.7	3.4	14.3	26.8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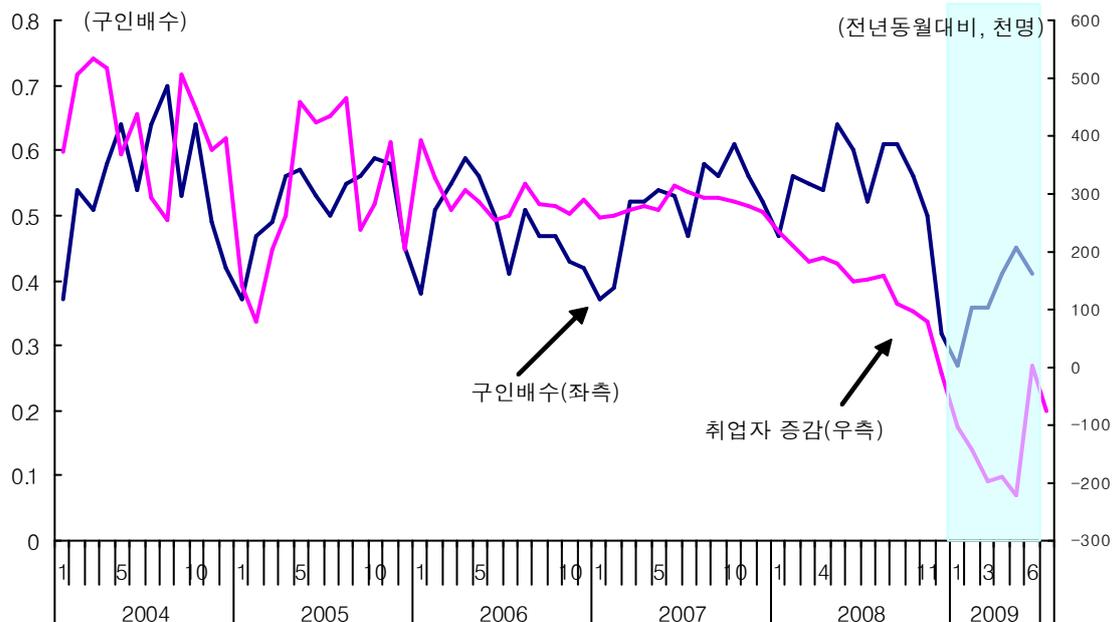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 향후 고용시장 전망과 대책

1) 향후 고용 시장 전망

- (개요) 향후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한계로 고용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구인배수와 신규 취업자수 등 고용 지표 상으로는 추가적인 고용 여건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지표 중 대표적인 선행지수인 구인배수와 이에 후행하는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추가적인 악화는 보이지 않고 있음
 - 구인배수는 2009년 1월 0.27을 최저점으로 6월 현재 0.41까지 상승하였고, 신규 취업자수는 2009년 3월 -19.5만명을 최저점으로 7월 현재 -7.6만명까지 회복됨

< 구인배수 및 취업자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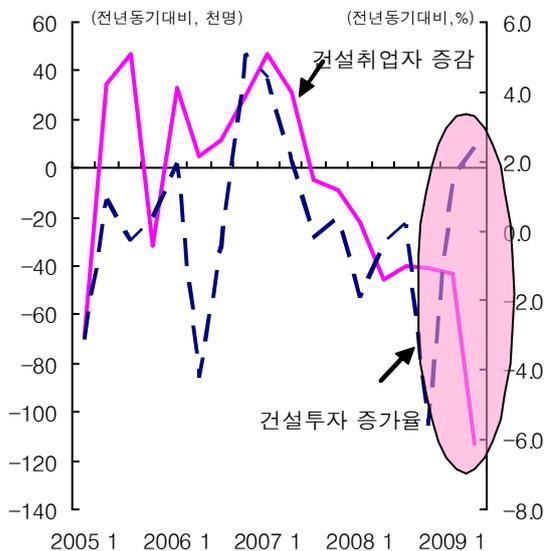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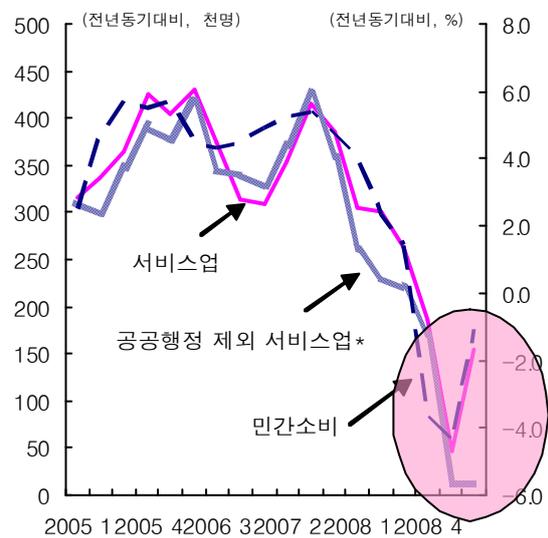
○ (경기적 요인)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고용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건설 투자는 정부 재정 지출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6%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2/4분기에 2.4%까지 상승함
 - 그러나, 건설업 신규 취업자수는 2008년 4/4분기 4만 1,000명 감소에서 2009년 11만 3,000명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됨
- 민간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후에 고용 창출력이 높은 민간 서비스업의 고용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행정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신규취업자수는 2008년 4/4분기 17만명 증가에서 2009년 2/4분기 1만명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됨

< 건설투자 및 건설업 취업자 증감 >



<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⁵⁾ 취업자 증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을 말함.

5) 여기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2007년) 기준에 따라, 통계청의 분류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포함이 되고,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이 포함되고, 중분류에 대한 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 (기업 구조조정 요인)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순차적 구조조정의 진행 : 현재 대기업그룹·개별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됨
 - 대기업그룹 : 2008년 하반기부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시장평판 악화 및 유동성 우려 업체에 대해 자구계획 수립을 유도함
 - 특히, 2009년 6월 1일 현재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이인 대기업 그룹 중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 개별 대기업 : 여신 500억원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하여 433개 업체중 33개(C등급 22, D등급 11)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10)
 - 중소기업 : 2009년 7월 15일 현재 861개 1차 평가대상 업체중 113개 업체(C등급 77, D등급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

-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향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중 9개사에 대해 기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있으며, 68개사는 해당업체와 채권은행간 워크아웃 추진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임
 - 2009년 8월부터 여신 규모 30~50억원의 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평가가 실시중임

6)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보도자료, 2009.7.30.

7) 1차 신용평가대상은 여신 50억 이상의 외감대상 중소기업임.

○ (정부 정책 요인)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의 한계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 소진 : 희망근로프로젝트, 고용 유지금 제도 등 직·간접적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6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2009년 상반기 당초 계획인 3.4조원을 넘어 3.6조원을 기집행하여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간 계획안인 4.5조원의 80.0%를 집행함⁸⁾
 - 고용 유지 지원금 총 지원건수는 2009년 4월 6,673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7월 현재 4,785건으로 감소함⁹⁾

-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의 한계 :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수입 133조2,370억원, 재정지출 161조1,930억원으로 2009년 상반기 누적적자가 27조9,550억원에 달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8) 기획재정부, “09년 하반기에도 재정의 경기활성화 노력 지속”, 보도자료, 2009.8.12.

9) 기획재정부, “2009년 7월 고용동향 분석”, 보도자료, 2009.8.12.

2) 고용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 (개요)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청년층 일자리 대책** : 청년인턴제도 등은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정부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정보 시스템 분야 등 고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
- **여성 일자리 창출** : 고용 시장에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가사 및 육아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과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 및 재택 근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함
-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전직 및 재취업 유도**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취약계층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기간 중의 생계 지원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함
 - 실직자가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취업 교육의 내실화**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노동 수요와 부합되도록 기존의 제조업 기술자 양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육성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수정해야 함

정유훈 선임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2.9	2.7	0.7	0.7	-0.3	-0.4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3.9	-13.1	-11.7	3.7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28일	9월 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45	3.34	-0.11%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3.41	92.69	-0.715¥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291	1.4255	-0.0036\$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544	9,345	-199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534	10,215	-3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35	4.29	-0.06%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44.4	1,241.5	-2.9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607.9	1,608.9	1.0p

주 : 9월 4일 해외 지표는 전일(9월 3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28일	9월 4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72.96	67.91	-5.05\$
	Dubai	89.30	36.45	46.80	71.85	71.50	67.76	-3.74\$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57.81	248.74	-9.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